

영아살해 — 살인인가 자비인가

—James Manney & John C. Blattner—

Monroe주 김시관인 Dr. John Pless는 영아 Doe의 죽음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 영아는 죽음은 영아 살해의 한 실례이다.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목을 끈 것이었다. 부모들과 가족들은 수세기 동안 원하지 않는 아기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어왔다. 그들은 아직도 미국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부모들은 이 무시무시한 일을 행해왔다.

생존문제에 압박에서 살고있는 Eskimo인파 다른 민족들은 그러한 요소에 노출됨으로써 신체적 결함을 가진 아기들은 살해해 왔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다른 문화권내에서는 가끔 원하지 않는 여아를 살해하기도 하였다. 중세유럽의 미혼모는 그들의 죄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아기를 살해했다.

오늘날 미국에서 영아살해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일어난다. 장애아(handicapped babies)는 종종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살해된다. 그러나 더욱 많은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영아에게 요구되는 어떤것을 보류하므로써 이루어진다.

때때로 음식과 물이 억제되고 때로는 정상아들은 항상 받을 수 있는, 즉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술을 받게되지 못하기도 한다. 의사는 가끔 다량의 약물로 아기를 진정시켜서 그들이 배고파도 울지 못하도록 하여 조용하게 잠이 죽게

한다. 또는 항생제부여를 보류하여 아기들은 감염으로 죽게될 수도 있다. 또는 누군가가 허우적거리는 아기(struggling infant)는 적절한 진정인 삶을 살수가 없을 것이라고 결정내려서 생의 지지체계를 차단시킨다.

일반미국인은 Kentucky주 Lexington의 간호원이 연방기관에 써서 보낸 불완전한 영아에 대해 내린 결정(decision)을 보낸 충격을 받게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의사와 간호원이 새로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은 부모에게 아기를 그냥 죽게 놔두라고 하였으며 그것이 그의 고통을 끝내는 것이라고 설득시키는 것을 들었다. —사실상 그것은 그들의 아기를 기아상태로 죽게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두명의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1973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거기에서는 Yale-New Haven Hospital 중환아실에서 단지 영아살해라고 볼릴 수 있는 형태만을 기술하였다.

Dr Raymond S. Duff와 Dr A.G.M. Campbell은 18개월동안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299명의 죽음에 관한 연구를 했다. 전체의 14%가 되는 41명의 죽음이 의도적원의 치료보류나 철회에 의한 것이었다.

Duff와 Campbell은 그들은 단순히 병원신생아실에서 일상격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침묵

*Journal of Christian Nursing, Summer, 1985
최영희 역(분회 출판위원장)

을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냉담한 도전으로 결론을 내렸다; 만약 우리가 제안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dilemmas를 해결하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A Discriminating Definition

우리는 영아살해가 아닌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만한다. 심하게 아픈 영아에게서 치료를 보류했거나 철회하는 모든 결정이 영아살해라고 불릴수는 없다.

태어난 아기의 죽어가는 삶을 무의미하게 연장시키는 것이 좋은 치료가 아니다. 만약 출생 후 단지 짧은 시간동안 살아남게 될것이라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의학적인 판단이라면, 의사는 호흡기를 부착할 필요도, 수술을 수행할 필요도 또는 단순히 짧은 시간동안 압박해있는 죽음을 연장시키려는 다른 연관된 치료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불필요한 치료를 보류하는 것이 영아살해는 아니다. 예를들어 만약 가장 최선의 의학적인 판단이 치료를 하는 것이 그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것이었다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그아기가 죽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 치료는 단지 의학적으로 효과적일때만 계속되어야 한다. 물론 요점은 이것이 사회적 편견, 또는 어떤 사람의 미래 삶의 질에 대한 평가와 기초를 둔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판결에 의한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삶을 계속하게 하기위한 특별한 수단을 거부하는 것이 영아살해는 아니다. Barney Clark은 도덕적으로 외과의로 하여금 그에게 인공심장을 주라는 의무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부모들은 성공의 기회가 적은 수술 쓰는 효과가 알려져 있지않은 실험적인 치료를 정당하다고 인정해서는 않된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의학적인 연구목적을 위해서 생존시켜서도 않된다

특별한 수단에 대한 생각은 매우 남용되어져 왔다. 영아살해는 가끔 편견상 일반치료를 특별치료라고 불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그

러나 그 개념은 매우 단순하다. 즉 영아살해의 옹호자들이 기꺼이 인정하려는 것보다 더욱 단순하다.

일반치료와 특별치료간의 차이는 이것이다. 즉 만약 장애아를 위해서 고려된 치료가 정상아 인지에 대한 질문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일반치료이다. 장애아는 이것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 치료가 정상아를 위한 과감하고도 특수한 것이라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장애아에게는 보류되어 질수 있다. 장애—정신지체, 신체장애—로는 그 신생아가 살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사실 이러한 구별이 영아살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영아살해를 위한 표적이 되는 아기들은 비의학적인 이유가 필요 없다. 그들의 잔호는 비쌀것이고, 그들은 유산에서 생존한 것이며, 그들은 고통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들의 부모와 형제에게 부담을 주게 될것이다. 그들은 생식능력없이 살게 될 것이 더 그주의 예산으로 기관에서 증말을 받게 될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지체를 갖게되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아동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때—일상적인 수술, 항생제치료, 음식과 물 조치도—그들은 오늘날 미국병원에서 이것을 얻게되지 못할 수드 있다.

Quality of Life-in-New Ethic

윤리학의 새로운 개요가 의료인에서의 윤리적인 사고에서 지배적이 되었다. 1970년 California Medicine에서 “새로운 의학윤리”가 묘사되었다. 익명의 논설가는 의료인이 두 윤리학자이에 참여있다고 생각했다. 유대—기독교인인 드렉전통에 의해 발갈된 구 윤리학은 인간의 단계 혹은 상대에 관계없이 모든 인생의 내재적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강조했다. 반대로 인간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기보다는 상대적인 가치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수용할만하다는 삶의 질에 관한 윤리학이 있다.

무엇이 특별한 개인의 삶의 질인가? 그 저자는 그 정의가 개인의 실현을 위한 개인적인 능력, 복리, 환경보존과 인종의 개량을 포함한다고 예측했다.

이저자는 예언했고, 사실 아기는 그가 인용한 이유들 때문에 죽여져왔다; 다른 사람들은 장애아를 소생시키는 부담은 그들 부모와 형제자매들의 인간적인 복지를 방해할 것이고 불구자는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요구에 따른 영아살해를 옹호하는 의사들은 종종 Joseph Fletcher라는 신학자의 견해를 인용한다.

Fletcher는 인간은 가능한한 어디에서든지 인간복지를 증가할 도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아살해는 수용할만하다고 믿는다. 인간권리에 관한 질문들은 방해되어서는 않된다. “모든 권리는 불완전하며 만약 인간요구가 이것을 요구한다면 무시될 수 있다”라고 human life에 관한 그의 수필중의 하나에서 말하고 있다.

Fletcher는 공리주의적이고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을 가진 사람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에 적합치 않다고 믿는 사람이다. 오히려 공리주의자는 정당한 행동은 최대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Fletcher는 그의 지침원리를 솔직하게 서술한다. “인간의 행복과 복지는 최고의 선(good)이다.……그러므로 이상과 표준이 확인하는 어떤 결과와 목적이 바로 선이고 정의이다.”

자살과 자비로운 살해는 이 개요에서 수용될 수 있고 영아살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개탄할 필요가 없고 인간의 양심과의 잔인한 타협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간의 선(human good)이다. Fletcher는 “도덕적으로 선한 결과는 어떤 상황에서 상대적인 나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에 귀착된다”고 말한다.

윤리학자들은 특히 다른 이유들을 제시한다. 즉 몇몇 장애아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Stanford 대학의 철학자인 Michael Tooley는 많은 사람들이 person과 human being의 용어를

교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행하게 생각했다. person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삶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human being은 한 person으로서 마땅히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Tooley는 말한다,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Tooley는 하나의 규칙을 세웠다: “한 유기체가 만약 그의 경험과 다른 정신상태의 주체로서 자신에 대한 개념을 소유하고 그가 이렇게 계속되는 본체 그 자체라는 것을 믿는다면 삶에 대한 진정한 권리를 소유한다”는 규칙을 세웠다. 이것을 기초로 Tooley는 출생후 1주일까지 영아살해를 허락한다.

Tooley가 human infant에 대해 결말짓는 반면에 그는 동물에 대해 걱정한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자의식이 있을 수 있고 계속되는 본체로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아기에게는 일치되지 않는 삶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Tooley는; “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도덕적으로는 옹호의 여지가 없고, 사실 우리는 흠 없는 사람들을 살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결론짓게 될을 발견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만약 Tooley가 장애아의 인생(personhood)를 의심한다면 Joseph Fletcher는 어린이의 인간성조차도 의심한다 Fletcher는 혼란된 근대주의자들에게 누가 인간인지 아닌지에 관한 비평적인 판단을 세운 15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최소한의 지능, 미래에 대한 지각, 과거에 대한 지각,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합리성과 감정사이의 균형등이 포함된다.

그는 이러한 범주중의 몇몇 의미에 대해서는 모호하나 다른것들에 관해서는 상세하다. 예를 들어 I.Q가 40인 인간존재는 인간인지지를 의심스러워 하며; 20이하일때 그는 인간(person)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피엑스러운 공리공론에 의한 괴상한 생각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이것은 영아살해에 관한 수수께끼

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것들은 영아살해의 증대를 수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의사들은 장애아의 치료에 대한 안내로서 생리윤리학의 전문가를 믿는다 부모들도 그렇게 하고 정책결정자와 병원관리자들도 그렇게 한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유산하기로 계획된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에 대한 실험을 인가한 연합정부와 영아살해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더 강한 처벌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presidential에 commission 대해 제지했다.

Subtle and signal influence

Fletcher와 Tooley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윤리학자들은 이와같은 질문에 관한 의학의 견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의 대답은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중환아실에서 의학업무에 관한 생리윤리학자들의 영향은 미국 의학협회에서 장애아의 치료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1981년 부터이다. 그것은 "질적인 삶(quality of life)"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의사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한 것과 같다. 결합있는 아기를 둘볼때 의사의 종교와 판단은 꽤히 이용되어질 수 있지만 심하게 결합있는 아기를 치료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발휘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부모들의 선택이어야만 한다. 부모들은 기대되는 효과, 위협, 제안된 치료에 대한 한계 및 그 아기의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인간관계의 잠재적인 면과 부모의 질문에 대한 정보나 대답에 관해 들어야만 한다.

이러한 지침은 많은 의사들을 혼란케 했다. 이것의 분위기는 아기에게 대해 반대하는 것이 부가 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어린이를 죽도록 한 결정은 앞으로 닥쳐올것을 가정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 지침은 또한 어린이에 대해 도덕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묘사했다. 어떤 가치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전대에서 가치가 유도된다.

많은 의사들은 소아과의사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을 옹호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명백한 진술의 결여에 대해 개탄했다. 다른 사람들은 의사결정과정의 이러한 서술이 몽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의사들은 그들이 부모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치료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다른 방법으로 속이는 것은 유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침의 가장 진기한 특징은 아마도 끝부분의 표현일것이다. "human relationship의 잠재력은 아기의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상관원리(relational principle)"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모호한 표현이며 해석에서 부단히 주관적이며 의학적인 진술에서는 완전히 부적절했다.

상관원리는 사실상 전혀 의학적인 근거에서 온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생각을 표명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생리윤리학자들의 산물이다.—Richard McCormick이라는 예수회 신부는

몇몇의 윤리학자들과는 달리 McCormick신부는 명료하고 조심스럽게 논하며, 터무니없는 진술도 아니며 전통적인 윤리학에 맹렬한 비난을 하지도 않았다. 사실 그는 가장 전통적인 윤리철위자이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이는 분리될 수 없는 두 사랑이다. 그는 "만약 누군가가 말하길,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요한복음 4:20~21 말씀을 인용한다.

이것으로부터 McCormick신부는 몇몇의 인상적인 결론을 유도한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타인을 사랑하고 인정하도록 요구하신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라면 유대인—코티스완의 견지에서 생의 의미, 내용, 종말은 인간관계와, 그들 주위의 존경, 존경, 관심, 동정, 지지의 질에 기초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한다.

Dangerously Open-ended Drinciple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의학잡지가운데 하나인 미국의학협회지에 실린 논문에서 McCormick 신부는 장애아를 위한 상관원리를 진술했다.

“고통스럽고 가난에 찌들고 가정과 친구들과부터 소외된 그리고 억압된”생이라는 것은 신과 이웃의 사랑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가능성인 인간관계가 위협당하고, 억압을 받고 빈곤에 빠져서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이 해야하는 삶의 의미와 핵심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여 질 수 있는 삶이 될것이다. 그러한 경우에서 크리스찬들은 삶이라는 것은 그자체의 잠재성을 성취한 것이며 개인들은 죽도록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 지침서가 심히 기형이고 손상된 아기의 삶을 유지시키는데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심히 기형이고 손상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불구의 경험에 없는 건강한 성인들이 정말로 어떻게 장애아가 다가올 미래에 가지게 될 관계의 특성(quality)과 진가(value)를 상상할 수 있을까?

사실 상관원리라는 것은 이론 뿐만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결여되어 있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장소에서 관계에 대한 한계를 정할 것이다.

예를들면 Doe신생아에 관한 것이다: 그는 불치의 염색체이상과 교정은 되나 삶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가진, 그리고 아기의 관계능력이 표준 이하이라 확신하는 부모를 가진 아기이다. 만일 수술이 관계를 위한 그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 상관원리가 그에게 수술을 받게 하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관계가 표준이하 일지 어떤지는 단순히 견해상의 문제이다. McCormick 신부는 수술을 요구하였다. 그는 영아 Doe의 경우에서 책임있는 권위에 대해 단호했으며, 그것을 합법적인 절차나 똑같은 법의 방어없이 순전히 무구한 생명을 주 권위(state-awthored)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아살때가 더욱 일반적이 되어질에 따라 그는 많은 경고를 제기했다: 즉 아기들은 가족들이 그들에 잘 대처할 수 없다고 해서 죽여서는 않된다. 저능아들은 그들이 저능하기 때문에 기아가 되도록 방치되어서는 않된다; 비치료결정(nontreatment decisions)은 의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범정은 의사결정자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할때 적절히 증재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원리에서는 이것중의 어느것에 관해서도 McCormick신부의 견해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변호사이며 “Death, Dying and Euthanasia”의 공동편자인 Denis Horan씨는 지적하기를 이상관원리는 McCormick 신부 수중에 있는 아이를 제외한 몇몇 지체아(retardate)를 위한 사망 증명과 마찬가지로 방도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 상관원리라는 것은 전혀 원리가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 그것을 특별한 경우에 적용시키기 시작하자마자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많은 생리윤리학자들은 오늘날 “질적인 삶(quality of life)”이란 표준을 좋아한다. 그들에게 권리나 공평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큰 차이는 세계관에 있다. 이러한 생리윤리학자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자가 2천년동안 서양에서 자라온 유대-크리스찬 가치체계의 완전히 대조되는 인간 삶(human life)에 대한 새로운 미전을 표현했다. Joseph Fletcher는 몇 단지는 우리 스스로를 “신은 조물주(cause) 일뿐 아니라 자연과 이의 작품의 창시자이며, 그리고 창시자 일뿐아니다 경영자이기까지 하다는 것에 대한 진부한 견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것들은 인간윤리의 의지이며 힘이다. “그것은 한 어미의 자식인 송아지 무리를 쫓아서 부터 밀어제치는 것과 같은 구습이다”라고 신학자인 James Burtchaell는 말했다.

예를들어 작가인 Marvin Kohr은 만일 존엄성

이라는 것이 그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능력과 흡사한 어떤것으로서 Kohl의 특별한 감각안에서 이해되어진다면, 자비로운 살래는 인간 존엄성을 절진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의 존엄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인간은 스스로를 죽이거나(자살), 또는 만일 그가 혼수상태이거나 침상에 있다면 그는 더이상 조절이 안되므로 살래기를 원하게 될것이다. Kohl은 말하기를 우피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관점에서 그러한 인간을 자비롭게 죽일수 있다고 했다.

철학자이며 의사인 Tristran Englehardt는 이것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힘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들에게 존재를 부여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로부터 존재를 없애지도 않는)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고 믿었다. 인간들은 이제 생식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그는 서술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언제 그리고 어떠한 환경하에서 존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Englehardt로서는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살게 놔두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단순한 산아 조절의 한 측면으로 보았다.

Joseph Fletcher는 가치체계의 불일치가 많이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한 측면은 살고 죽는 것은 신의 뜻에 있고 생이라는 것은 신이 부여하는 것이고 신만이 걸어갈수 있다라고 보는 단순한 견해이다. 다른 측면은 post-human being에 있어서 인간이하의 삶의 종결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의 윤리학을 가진 인류의학이다.

그러한 것이 영아살해가 만연하는 속에서의 유해한 도덕적 풍토이다. 우리가 직면한 중요

논쟁거리의 하나가 이러한 도덕적 풍토가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논쟁은 어떤 가치나 비전이 미국인의 생활에 주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가치가 우리의 법과 공공정책에 반영될것인가 하는 것이다. 불길주의, 실용주의, 비용/이익, 세속적인 견해가 지금 적극적으로 상승세이다.

논쟁은 인간답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사회에서 살기위해서는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나치게 혼란된 생각이다. 영아살해를 합리화하는 윤리학자들은 엘리트들이다. 그들의 정의내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단순한 인간 이상이 되기를 요구한다.

그들은 그들의 윤리는 정말로 반윤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용어로 죽음에 대한 그들의 분류의 틀이나 완곡어법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덮어버린다. 그들은 인간공공체의 기초를 공격한다. 그들은 인간의 어두운 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장한다.

진신은 삶을 위해 투쟁하는 불구아도 인간존재라는 것이다. 우리중의 대부분은 윤리학자나 급진적인 공리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후 질병이나 장애나 가능한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구아들도 우리들 중의 한 사람이며 신의 피조물이며 귀중한 교배이다. 우리는 이곳이 인간의 어두운 면이 우세하지 않으리라는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안위를 취해야 한다. ☐